

## 금감원장, 임원회의(5.20.) 당부사항 (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)

-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美 신용등급 강등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
  - 일부 금융권의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응하여 금융산업내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음

### (美 신용등급 강등 관련)

- 지난주 Moody's의 美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영향은 과거 사례\*에 비해 제한적이나,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하여 경계심을 늦추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,
  - \* [S&P 강등, '11.8월 美 등급 하락에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美 국채달러 동반 강세 [Fitch 강등, '23.8월]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급격한 美 금리인상으로 美 국채 약세 및 달러강세 [Moody's 강등, 현재 美 정책신인도 하락 및 경기둔화중 발생하여 美 예외주의 악화 가속화 우려 증가
- 금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하여, 장기적으로는 美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,
  -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,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

### (금융산업내 유효경쟁 촉진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)

-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 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,
  -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,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
  -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
    -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\*,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,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하여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

\*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여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 필요

담당부서 : 기획조정국장  
금융시장안정국장

이창규 (☎ 02-3145-5900)  
이 진 (☎ 02-3145-8170)

팀장 이희성 (☎ 02-3145-5940)  
팀장 이원흠 (☎ 02-3145-8180)  
팀장 최현필 (☎ 02-3145-8590)